기술 갯ㄴ

탈원전 반대 –

1. 경제성) 원자력 발전은 초기 투자비용이 다소 비싸지만 장기적으로 볼 때 다른 에너지원에 비해 운영비용이 매우 싸서 경제적이다. 원자로의 원료인 우라늄은 석유나 천연가스에 비해 싸고 적은 연료로 많은 전력을 생산할 수 있다. 재생에너지 기술이 비용대비 효율성이 현저하게 떨어진다. 원자력만이 유일한 해결책이다.

* 탈원전을 하게 되면 전기료가 올라가 경제 발전에 문제가 생길 것(실제 한전에서 탈원전으로 인해 적자가 발생한 사례가 있음)

1. 친환경성) 기후변화에 영향을 끼치는 대표적인 온실가스는 이산화탄소(CO2)이다. 따라서 CO2 배출량이 친환경성의 척도로 간주되고 있다. 국제에너지기구(IEA)에 따르면 원자력발전의 CO2 배출량은 단위전력(kWh) 생산 당 석탄발전의 약 1/1000에 불과하다.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온실가스를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다.
2. 일본의 관리 미흡으로 원전 사고가 발생한 거기 때문에 사고 발생에 대한 매뉴얼을 잘 세워두면 원전 사고에 대한 빠른 대처가 가능하므로 큰 문제가 없을 것.
3. 일본에서는 지형이랑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고려하지 않았음 -> 원전 자체의 문제보다는 설계가 미흡해서 생긴 문제
4. 탈원전을 주장할 때 방사능 문제를 언급하는데, X-레이 촬영을 하는 경우, 회당 100mg~500mg의 방사능을 쏘이고, 위 촬영시에는 1500mg의 방사능을 쬔다. 이와 비교해 봤을 때 원전수거물처리장의 방사능 배출 제한치 1mg은 인체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수준이다.

원자력 폐기물은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때까지 쓰는 에너지 원자력폐기물을 모아도 음료수 캔하나도 안나온다. 폐기물의 양은 생각보다 매우 적다.

1. ~~대체 에너지 부족~~

* ~~현재 원전비율32퍼 화력39퍼이며 나머지 수력 풍력 태양등등 자연 에너지들 다 모아 봤자 29퍼 입니다. 다른 자연에너지는 이미 포화상태고 새로운 에너지를 발견하기전까지는 원전은 계속 돌릴 수밖에 없는것이 현실 입니다.~~

1. 기술은 항상 위험한데 보완을 해가면서 기술을 발전시켜나가는 것이지. 문제가 생긴다고 바로 기술을 버리는 것은 안일한 생각.
2.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의 기술에는 차이가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의 기술을 남용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원자폭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음
3. 방사능 폐기물은 어떻게 할 것인가? -> 탈원전을 시행해도 대체할 게 화력 발전이나 그런 것인데 어차피 다른 방식으로 자연이 파괴될 것이다.

탈원전 찬성

핵무기로서 악용이 가능하다.

* 반론) 원자폭탄과 원자력발전의 기술 활용에 대한 차이가 있으므로 원자력 발전의 기술을 남용하려고 하지만 않으면 원자폭탄으로 발전할 가능성은 없음